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 고난      제목 : 고난이 유익이라      성경 :  
누가복음23장26-38절

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불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27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 예수께서 돌아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9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임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32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이와 신 포도주를 주며

37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눅23:26-38)

오늘은 종려주일,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또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 예수님도 위로를 받으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미 오래 전부터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의 고난이 고난의 정점이 되었지만, 사실은 더욱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다.

가까운 고통은 제자들의 자리다툼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셋기셨겠는가?

예수님은 차라리 베드로의 배신이나 제자들의 도망함 같은 것은 고통도 아니셨다. 배신당했다는 느낌도 느끼지 않으셨으리라. 제자들도 황급히 도망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유다의 배신만큼은 큰 고통이셨다. 목요일 저녁 내내 유다를 염두에 두는 말씀을 연거푸 하셨고,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뻔 하였으리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이 얼마나 큰 고통거리이셨는가?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왜냐면 그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다 더 큰, 가장 큰 고통은 민족을 향한 고통이셨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꼭 이스라엘까지 함께 멀망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 점이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어차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시도록 계획되었으나 이스라엘의 고난은 필연적인 고난이 아니었다.

주님은 오죽 했으면 당신이 고난을 당하려 가시는 마당에 뒤를 돌아보시며 우는 여인들을 책망하셨다.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 너희들은 지금 진정으로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이 지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슬

폐하며 부르짖어야 할 제목은 따로 있다. 그것은 이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28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9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임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엉뚱한 짓들을 행하고 있다.

제일 먼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해야 할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로마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과격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로마 사람들과 결탁된 기득권층들은 이런 반정부 시위운동 테러 분자들을 염려했고, 이들이 온근히 예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은 로마에서 이들을 소탕하려는 목적으로 군사를 파병하였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여 뿔뿔히 흩어지고 그후 1900년 정도를 나라없이 떠도는 방랑민족으로 존재했어야 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온 나라가 회개할 때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부류들.

스스로는 메시야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메시야가 왔는데도 거부하는 부류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셨다.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임인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23:37)

29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마23:29)

33 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 23:33)

첫 번째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자.

39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히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4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43 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넘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눅19:39-44)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데. 이날 우셨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우셨다. 너무 슬픈 날이었다. 왜냐면 온 유대가 즐거워 해야 할 날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고통, 가시관의 고통도 큰 고통이셨다. 모욕을 당하시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것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하며 견디셨다.

그것은 가장 큰 고통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명이었고 마땅히 각오하신 고통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렇지만 어떻하리. 그들의 죄악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 것을.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벧전2:20)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전2:21)

이 세상에는 이처럼 사명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적인 고난만 있는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밀물처럼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이런 고난도 유익한 고난이라고 선언한다.

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울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119:71)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물론 고난 그 자체가 좋거나 선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적 고난은 희생적인 고난이다. 사명이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희생과 인내와 업신여김과 손해봄과 뒤집어 씀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은 고난이 필연적인 것이 많다. 저주 때문이기도 하며, 오래도록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방지한 결과이기도 하며, 재앙때문이 기도 하며, 무지나, 실수, 욕심, 교만, 나태함, 나이들어감, 무자비함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고난의 밀물을 끌어당긴다.

고난이 닥쳤을 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죄악으로 인한 저주가 가득찬 사람들은 바로 넘어진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궁휼을 입은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이다.

왜냐면 정신을 차리기 때문이다. 꿈에서 깨어난다. 새로운 삶을 살 아가게 된다.

그러나 평계를 대거나, 원망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동경하거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질망하거나, 울분을 품거나,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치명적인 독이 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약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유익이다.

아기는 탄생의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다.

애벌레는 고치를 벗는 고통을 이기면서 나비가 된다.

독수리는 텔갈이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후반기의 삶을 시작한다.

또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

고난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승리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들은 영생과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 <찬양예배>

주제: 종려주일 제목: 예수님이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  
말씀: 예레미야 33장 1-11절

1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향하여

5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6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8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9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11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령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33:1-11)

민족의 운명 앞에 절규하는 예레미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날 임하신 말씀.

고난의 중심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스터플랜.

예수님이 소망했던 나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금 되풀이 되는 기나긴 고난의 세월들.

- 이 고난은 sun rise, sun set에 잘 드러나 있다.

-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머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길렀다.

-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세계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사람의 불신앙과 죄악은 세상을 좌충우돌하게 하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그 뜻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염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된다.